전남 시군 대규모 사업 중앙 투자심사 재검토

광양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등 5건…난항 예고

행자부 "수지 전망 재분석·타당성 조사 보완 필요"

전남도내 시·군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7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회의 결과 목포시의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사업(사업기간 2017~2021년 사업비 189억원), 광양시의 산림복지단지 조성(2018~2021년 250억원), 영광군의 불갑사관광지 확장조성사업(2015~2020년 159억원), 완도군의 실내체육관 건립(2017~2019년 120억원) 및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2018~2020년 250억원) 등 5건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전남도가 제출한 미래신성장동력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2017~2021년 214억원), 서남권 해양수산종합지원관 건립(2017~2018년 78억원), 화순군이 제출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2016~2020년 150억원) 등 3건은 조건부로 통과했다.

재검토가 결정된 이들 5건의 사업은 사업 축소 검토 및 수지 전망 재분석, 경제적 타당성 조사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판단이다.

22개 시·군이 제출한 38건의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관련 전남도 심의에서는 고서 인터체인지~광주댐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491억원), 구례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96억원), 구례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50억원) 등 11건이 적정 평가를 받았다. 여수 가고 싶은 섬 손죽도 가꾸기 사업(40억원) 등 18건은 조건부 통과,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개발사업(60억원) 등 9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된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의 남중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270억원)은 도비 30억원 지원액 조정 가능, 사업추진 과정 추가 사업비 여수시 전액 부담 등을 조건으로 통과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폐건전지 자원재활용 분류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27일 환경오염 예방과 폐건전지 자원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수거해온 건전지를 북구 건국동 재활용창고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성 261만명 혼자 살아 … 5년새 17.7% 증가

통계로 본 여성 삶

한국 여성 261만 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꼴이다. 여성 1인 가구는 5년 사이 17.7%나 급증했다.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27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여성 1인 가구는 261만 가구로, 전체 520만3천 가구의 50.2%에 달했다.

2000년 130만4000 가구에서 15년 사이 배로, 5년 전에 비해서도 17.7%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43.2%로 가장 많고 20대(15.4%), 50대(15.3%)가 뒤를 이었다. 남성 1인 가구가 2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한 반면 여성은 50대 이상에 집중됐다.

또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여성이 점점 줄어 미혼 여성은 열 명 중 세 명에 그쳤다. 만혼 추세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30세를 넘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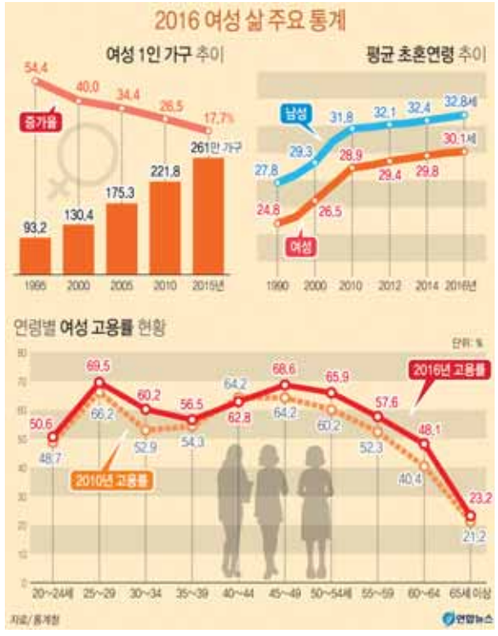
지난해 처음 결혼한 여성의 나이는 평균 30.1세였다. 재작년 30.0세에서 더 많아졌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32.8세였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7300쌍 중 결혼한 지 20년 넘은 부부가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년 이하 부부(22.9%)였다.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2012년부터 4년 이하 부부보다 많아져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결혼을 보는 인식은 여성이고 미혼일수록 유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13세 이상 여성은 2010년 59.1%에서 지난해 47.5%로 줄었다. 남성은 절반 넘는 56.3%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결혼이 필수라는 미혼 여성은 6년새 46.8%에서 31.0%로 크게 줄었다. 미혼 남성(42.9%)보다 10%포인트 이상 적다.

/연합뉴스



"사람 중심 광주형일자리 주목 기대"

윤장현 시장 中 다보스포럼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27일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기업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 중심의 기업 구조를 구축할 '광주형일자리'가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중국 다롄 국제컨퍼런스센터(DICC) 프리널리홀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뉴챔피언 연차총회'(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시장은 "미국, 영국 등이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7%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정세가 한국과 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막행사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던 기존 생태계가 사라지고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에 적극 공감했다"며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큰 바다와 같은 존재로 작은 강물들을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이다"며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사람 중심을 기본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리커창 총리의 발언 중 4차 산업혁명이 지속성, 포용성,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다보스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잔 골드버그 등이 주요 세션에서 발제를 했다.

윤 시장은 28일에는 콘레드호텔 주리치홀에서 열리는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 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휴먼시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 광주테크노파크 부실 운영 19건 적발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의 부실 운영 사례가 광주시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주의 4건, 시정 8건, 권고 1건, 개선 6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기관장 경고와 관련자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했다. 또 11억1400만원을 회수하고, 1300여만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 페널티도 가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수행된 광주TP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광주TP는 그동안 13개 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 이력 등이 통보되거나 성과공유시스템(GPS)에 입력하지 않아 25개 협약기관이 63개 기업의 기업지원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해에 각각 다른 사업으로 24억7700만원을 면밀한 검토없이 중복 지급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시장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내부 절차 등을 통해 연구수당 지급규정을 제정, 시장 승인 없이 7명에게 모두 712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성과급 부적정 지급, 직원 근무평정 업무처리 미흡,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부적정,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미반영, 선금 정산 부적정 사례 등도 함께 적발됐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전력거래소-대학 '빛가람 학점과정' 협약

전남도는 27일 나주혁신도시 전력거래소에서 실력 중심의 교육·채용 확산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 및 대학과 함께 '빛가람 학점과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CS기반의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 관련 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과 대학이 함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남도 등 지자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빛가람 학점과정은 4주 160시간으로 운영되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이라는 전력거래소 고유 직무 관련 교육이 중심이다.

제1기 빛가람 학점과정은 7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운영되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등 10개 대학에서 선발한 50명의 졸업반 학생들이 참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 · 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 · 야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 · 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